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인천의꿈* 대한민국의미래	
		배포일자	2022년 10월 26일(수) 총 6매		
담당 부서	산업진흥과	담 당 자	• 반도체·소부장팀장 • 담당자	조동주 김영준	☎440-4296 ☎440-4297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인천유치 뒷받침할 추진위원회 출범

- 26일 ‘인천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위원회’ 출범식 개최 -
 - 유시장 “인천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에 한 축을 담당할 핵심지역” 강조 -

인천시가 빠르면 올해 말 선정될 ‘반도체 특화단지’ 인천유치에 박차를 가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0월 26일 송도 G타워 민원동 3층 대강당에서 ‘K-CHIP VISION 미래도시 인천!!’을 슬로건으로 ‘인천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반도체는 미래형자동차, 헬스바이오, 에너지, 디지털 등의 신성장 동력 산업 구현을 위한 필수재로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게 된다. 정부는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 7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으며, 지난 8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전략산업 특화단지란 반도체 등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 관련 교육시

설·연구시설 및 산업 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뤄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만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절차와 요건을 고시한 후 오는 12월이나 내년 1월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인허가 신속처리 △기반시설 구축 △세제혜택 △인력양성 등의 정부 지원과 특별 혜택을 받게 된다.

이처럼 국가 반도체산업의 혁신적 발전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전이 치열한 가운데 특화단지의 인천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것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총괄추진위원장이며,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조명우 인천총장포럼 회장, 심재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위원장이다. 한국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 인천반도체포럼(산학연관 네트워크), 성균관대, 인하대, 인천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기술연구소, LH인천지역본부 등 각계 최고기관의 전문가들 40명도 합류했다.

유치단 공동단장에는 반도체 패키징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강사윤 한국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 학회장과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 김진용 경제자유구역청장을, 부단장에는 한영신 인하대 프론티어학부 대학 교수를 위촉했다. 위원회는 반도체 특화단지를 인천에 유치하기 위한 추진방향성 제시, 최적의 유치전략 기획 등 유치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역할을 하게 된다.

인천은 송도, 남동산단, 영종 지역에 인프라, 인력양성, 기술, 투자유치, 소부장기업 등 타 시·도와는 차별화된 반도체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정책을 적극 견인한다는 구상이다.

출범식에 참석한 유정복 시장은 “대한민국 미래산업 명암을 가를 핵심 키워드는 반도체로, 인천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에 한 축을 담당할 핵심지역”이라며 “특화단지 유치를 통해 세계초일류 도시 인천의 반도체가 수출 전국3위, 사업체수 전국2위, 종사자수 전국4위를 넘어 전국 최고, 글로벌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인천의 반도체 산업은 최근 몇 년간 급성장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인천 반도체의 수출액은 122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27%를 담당하면서 수출품목 중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인천은 시스템반도체가 전국 시스템반도체 수출액 합계(397.6억 달러)의 약 30%에 달하는 116억 달러를 달성하여 우리나라가 취약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앰코코리아와 스테츠칩팩코리아 등 후공정(패키징) 분야 세계 2·3위 기업을 비롯해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인 한미반도체 등 반도체 관련 소부장 기업 1천200여개와 IFEZ, 항공물류, 대학·연구소 등으로 형성된 반도체 생태계가 뒷받침돼 가능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5시)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참고자료>

인천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위원회 출범식

□ 행사개요

- (행 사 명) 인천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위원회 출범식
- (일 시) 2022. 10. 26.(수) 14:00 ~ 15:00
- (장 소) 송도 G-타워 대강당(민원동 3층)
- (참 석 자) 시장, 시의회 의장, 경제자유구역청장, 공동위원장 등 150여명
- (주요내용) 위촉장 전수 및 인사말씀, 기념촬영 등

□ 진행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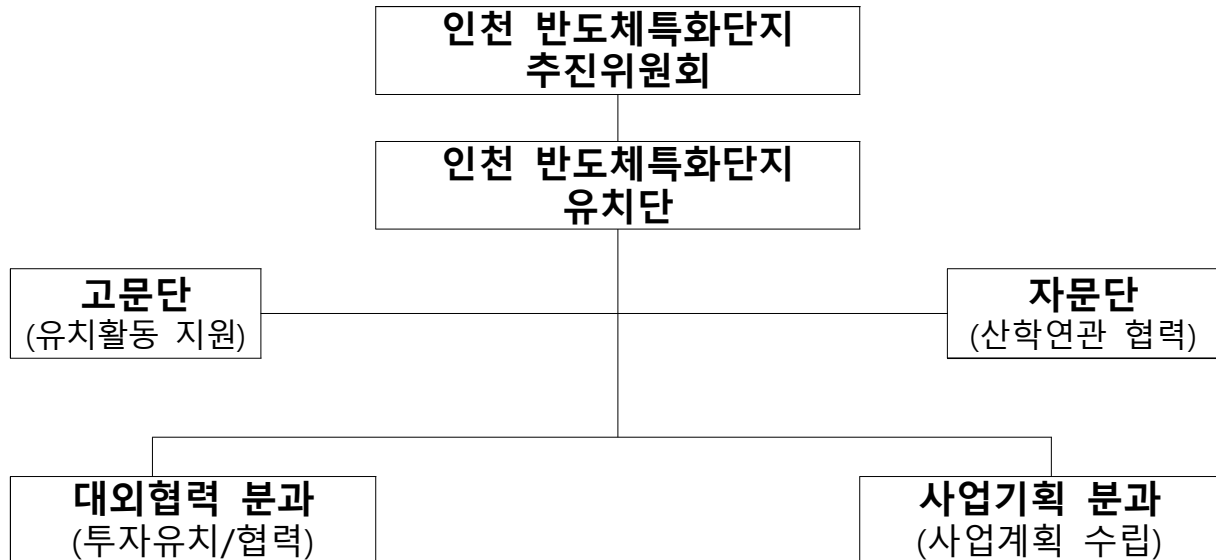
(사회자 : 전문MC)

시 간(60')		주 요 내 용	비고
14:00 ~ 14:05	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 회 자
14:05 ~ 14:15	10'	○ 위촉장 전수(유치단장 등)	인 천 광 역 시 장
14:15 ~ 14:20	5'	○ 총괄 추진위원장 인사말씀	인 천 광 역 시 장
14:20 ~ 14:35	15'	○ 공동위원장 인사말씀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14:35 ~ 14:55	20'	○ 단장 인사말씀 및 추진전략 발표	유 치 단 공 동 단 장
14:55 ~ 15:00	5'	○ 기념촬영	참 석 자 모 두
15:00	-	○ 일정 종료	참 석 자 모 두

참고 1

인천 반도체특화단지 추진위원회 구성(안)

- (체 계) 추진위원회+유치단+고문단+자문단+대외협력분과+사업기획분과



- (구 성) 최적의 유치전략 기획 및 전방위적 지지력을 발휘하기 위해 학계, 교육계, 산업계, 산업전문가, 연구지원기관 등 다양하게 구성

추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추진위원장(1명) : 인천광역시장 ■ 공동위원장(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교육계) 인천광역시 교육감, (학계) 인천총장포럼 회장, (산업계)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유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단장(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경제자유구역청장 - (학회) 한국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 회장 ■ 부단장(1명) : (학계) 인하대 프론티어학부대학 교수
고문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반도체 관련학과 교수 2명
자문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반도체포럼 회장, 뿌리기술연구소장, 대학교수, 경제산업본부장 등 9명
대외협력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과위원장) 市 산업진흥과장 1명 ■ (위원) 市, 인천TP, 경제청 등 관계자·전문가 9명
사업기획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과위원장) 인하대 제조혁신전문대학원장 1명 ■ (위원) 인하대, 생기원, 인천연구원, 인천TP 등 전문가 9명

참고 2

반도체 특화단지 개념, 지원사항

□ 관련 정부정책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22.8.4. 시행
*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해 인프라, 인력 등을 파격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법 제16조~제23조에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특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일정) 2022. 10.~11월 중 산업부에서 수요조사를 거쳐 2022.12.~2023.1월 중 지정계획

□ 전략산업 특화단지란?

- (개념)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 관련 교육시설·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함
- (절차) 시·도지사 또는 전략산업 관련 기업·사업자단체 신청 ⇒ 기술조정위원회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 ⇒ 산업부장관 지정
- (지원)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기반시설 구축, 민원처리, 부담금 감면 등 패키지 지원

- ▲ (인·허가) 특화단지 생산시설 인·허가 지연 ⇒ 신속처리 신청(기업→산업부장관) ⇒ 위원회 심의의결 ⇒ 신속처리 요청(산업부장관→인허가권자)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
- ▲ (기반시설)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연구개발 인프라 등의 구축비용 지원
- ▲ (부담금) 필요시 특화단지 입주기관을 대상으로 특별법에 규정한 부담금 감면
- ▲ (민원) 특화단지 입주기관의 「화관법」, 「화평법」, 「산안법」 등 민원사항 조속 처리

□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요건

- ① 전략산업 등의 집적 또는 경쟁력강화 효과
- ② 특화단지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할 것
- ③ 지역 주요산업과 전략산업등의 연계 발전 가능성
- ④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할 것